









## 《인권》 모략의 범죄적 정체는 가리울 수 없다

남조선 피피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반공화국을 비난하지 않고, 그때문에 남을 넘볼 경황도 없던 자들이 이번 어처구니없는 폭도를 저지른 것이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세력을 위협하면서 벌리는 《인권》 평화국에 고를 들이밀고 그 무슨 《인권침해》니 뛰어 하는 따위의 더 무너지는 애담질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때문에 남을 넘볼 경황도 없는 자들이 이번 어처구니없는 폭도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평화국에 고를 들이밀고 그 무슨 《인권침해》니 뛰어 하는 따위의 더 무너지는 애담질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피피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막강한 군력과 지역 지향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덮칠하고 우리사과 제도를 말살해보려는 흥미진한 계획의 발로이 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우리 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정치 철학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인민대중을 위하여 북부하게 하는 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민대중제 일주의를 정치철학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평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협연적 뉴트로로 굳게 묶여 떠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창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 것이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에 의하여 전세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13일부터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미국과 피피적 폐당의 《싸드》 배치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다운 정체가 절쳐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을 비난하지 않고, 그때문에 불순한 혐의를 실현해 려고 날뛰고 있는 피피들의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객봉을 자아내고 있다.

피피들의 평판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총파시의 운명에 처한 폭족 대결정책을 어떻게 하나 지탱해 보려는 밭작당동이다.

피피보수폐당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사설상 핵 문제, 《인권》 문제를 구

실로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 암살책으로 충돌을 겪게 되면서 《북침피》와 《제도통일》 암망을 실현하기 위한 악랄한 대결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의 간판을 내세우고 《북한포기》

를 실현하겠다고 고마데면서 북남사이의

대회와 협력의 문을 다이애고 미군을 비롯한 외세와 결탁하면서 반공화국 혁신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북침전쟁연습의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무슨 《핵력》을 하겠다는 가소

로운 나팔을 불어대면서 저들의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벌여왔다. 어찌서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깨비무당인 미친듯이 벌리였다.

피피적 폐당은 미국의 대조선고립 암살책

동에 적극 주종하면서 반공화국 세제와

# 미국의 <반례로전>은 전대미문의 국가테로행위, 반인륜전쟁범죄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 고발장

미국이 9. 11사건의 <보복>을 운운하며 미국의 <수호자>라고 칭찬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반례로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10여년째다.

미제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대량살상무기위협>이라는 생역지지를 브리면서 또 다시 이라크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을 때에 조차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빙종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라크전쟁방법 14년이 되는 오늘날 인류는 미국의 <반례로전>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폐허로 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냉혈적인 전란속에 무주고혹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새기고 있다.

역사는 세계체제야망에 떠들어 광범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기만적이고 잔악한 <반례로전>이 아말로 전대미문의 국가테로행위, 특대형반인권전쟁범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 1

미국이 강행하는 <반례로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체제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이며 새로운 빙종의 침략전쟁책동이다.

시작부터 미국은 <반례로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대한 자금 및 무기조달, 군사훈련 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짜짜하면서 미국의 이중적인 서사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앞에서는 <반례로전>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레트로단체에 대한 자금 및 무기조달, 군사훈련 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짜짜하면서 미국의 이중적인 서사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 도이체란드수상 슈뢰더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침공이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이란이 미국을 <악의 측>이라는 미제를 죄운 것은 <반례로전>라는 구실 밖에 이 나라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폭로하였다.

한미도 부수의 <악의 측>본은 미국이 제창하는 <반례로전>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압살하고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려는 강도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2003년 3월 미국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일당적인 군사적봉격을 단행하였다.

지난해 영국에서 이라크전쟁의 부당성을 밝힌 왕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에 의하면 영국정부가 조직한 이라크전쟁진상조사위원회는 7년간의 조사결과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이 비법적이고 부당하였다는 결론을 내리었다.

보고서는 전쟁의 적법적동기로 되었지만 이라크의 <생화학무기생산>과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완전히 허근한 것이었으며 대다수 유엔안보리사회와 성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이 강행되었다는 데 대하여 밝혀졌다.

한편으로는 대로분자들을 걸러내고 레토를 제거 전시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레로소랑>의 미명 하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감습을 일삼고 더 나아가서 제3세계제재마iming을 실현해보려는 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반례로전>의 전략이다.

이로부터 최근 미호경평들은 <반례로전>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세계적규모에서 미국의 무력번역을 제편성하는데 퍼뿐이 되어 날뛰고 있다.

지난 행전시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던 미군무역이 새 세기에 들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화되고 있다.

실际으로 미국은 이라크전쟁과정에 수많은 전략무기들을 중동지역에 공개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위협작동에 대여달라면서 레토사만 지역에 핵폭탄포함들을 비롯하여 많은 무력들을 점령시키고 서아시아를 국제무기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무기시장을으로 만들고 있다.

주권국가들을 제 마음대로 <악의 측>, <데로지전>으로 물어대면서 선제봉격에

상으로 삼고 다른 나라 국가지도자를 살해하는 것을 정책으로 세운 미국의 오만하고 횡포한 체지바답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국가테로행위였다.

미국은 철제계에 <반례로전>을 확대하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명도완성을

마구 침해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리비아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파키스탄과 예멘 등

의 나라들에 무인기를 동원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이대며 국도의 제단을 산생시키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반례로전>을 확대하면 할수록 해로세력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끝난지도 오래되었으나 미국이 목표로 정했던 <알 카에다>의 활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은 <이슬람교국가>라는 국제적인 세로조직까지 대두하여 전세계적범위에서 레토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앞에서는 <반례로전>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레트로단체에 대한 자금 및 무기조달, 군사훈련 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짜짜하면서 미국의 이중적인 서사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 도이체란드수상 슈뢰더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침공이 <이슬람교국가>

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이란이 미국을 <악의 측>이라는 미제를 죄운 것은 <반례로전>이라는 구실 밖에 이 나라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폭로하였다.

한미도 부수의 <악의 측>본은 미국이 제창하는 <반례로전>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압살하고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려는 강도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이란이 미국을 <악의 측>이라는 미제를 죄운 것은 <반례로전>이라는 구실 밖에 이 나라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폭로하였다.

한미도 부수의 <악의 측>본은 미국이 제창하는 <반례로전>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압살하고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려는 강도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제3세계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에 저지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국수당 불어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이 중동에 <이슬람교국가>가 출현하도록 하자고 인정하였다.

지난해 7월 미국무성은 아랍주장국연방에 각종 복권들의 유도장치들과 신관들을 포함하여 7억 8, 500만US\$어치의 무기들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까라르에 대한 211억US\$어치의 무기판매를 송

인하였다.

지금은 철제계에 <반례로전>을 확대하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명도완성을

마구 침해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리비아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파키스탄과 예멘 등

의 나라들에 무인기를 동원한 무인폭격인

공습을 들이대며 국도의 제단을 산생시키고 있다.

미국은 레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

리 풍족국에 <대량살상무기전쟁과국>, <불량국가> 등의 강령을 들여우고 우리에 대한 군제를 3종 4종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해

전쟁위험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와 우리의 기회는 경고와 고

우려로 침해하는 국적과 함께 이는 우려로

우려로 침해하는 국적과 함께 이는 우려로